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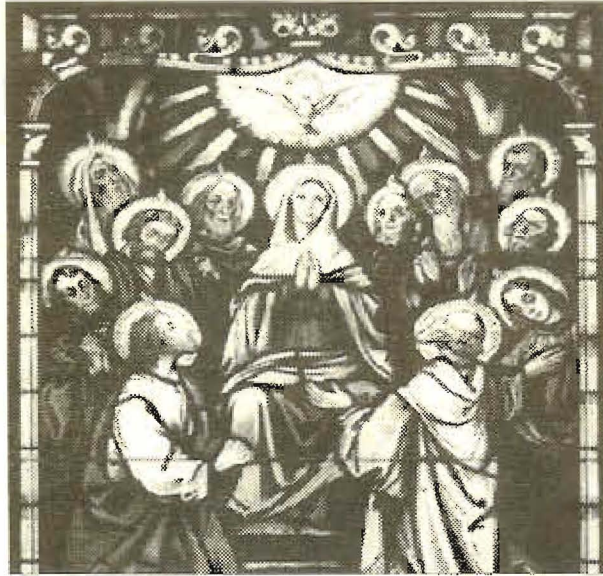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성모성월 · 부활 제6주일
제34권 26호(가해) 2014·5·25

[묵상]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신다.

그리스도인이란 근본적으로 변화된 사람이다.
예수님께 결합되고자 자기 자신으로부터 돌아선 사람이다.
하느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자기 생활의 모든 면에 그 신앙을 옮겨 놓는 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의 실전을 따라야 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그 계명을 보다 더 충실히 지키는 사람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오-

petrus3@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월요일	새벽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미사 학생미사(영어) 낮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에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에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프레아(4째주)	저녁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렉시오 디비나) 소년 레지오 마리에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6:00 오후 7:00
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4째토요일) 배튼청년회 모임	오전 10:00 오후 6:00 특전미사후
주일	레지오 마리에 아도라페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오전 9:30 • 안나회/양엄회/성모회/자모회/대건회/ 오후 1:00 3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 4째주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45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오향숙 마우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연)지용애
특전미사	(생)최태훈 아오스딩, 최보나 보나
주 일	(연)이경용 야고보, 이윤조 클라라, 이숙자 루피나 & 이용완 & 김정숙 & 홍숙녀 마리아 & 이두제 마리아, 고준희 제임스, 전시웅 요한, 이명자 로사, 이덕철 루카, 반순애 안나, 김두철 아브라함
낮미사	(생)서은순 모니카, 김기준 안젤라, 황춘자 엘리사벳, 오창근 베드로 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사도행전(the Acts of the Apostles) 8,5-8.14-17

화답송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온 세상 아 하느님 께 환호 하 여 라.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그 이름, 그 영광을 노래하여라. 영광과 찬양을 드려라. 하느님께 아뢰어라. "당신이 하신 일들 놀랍기도 하옵니다!"◎

○"온 세상이 당신 앞에 엎드려, 당신을 노래하게 하소서. 당신 이름을 노래하게 하소서."

너희는 와서 보아라, 하느님의 업적을, 사람들에게 이루신 놀라운 그 위업을.◎

○바다를 바꾸어 마른땅 만드시니, 사람들은 맨발로 건너갔네. 거기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기뻐하네.

그분은 영원히 권능으로 다스리신다.◎

○하느님을 경외하는 이들과, 모두 와서 들어라. 그분이 나에게 하신 일을 들려주리라.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당신 자애를 거두지 않으셨으니, 하느님은 찬미받으소서.◎

제 2독서 베드로 1서(1Peter) 3,15-18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복 음 요한(John) 14,15-21

영성제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는 다른 보호자를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알렐루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417	163	327
봉헌	269	270	249
성체	352	106	309
파견	그 사랑 야훼께...	324	168

올바른 성모신심

제5장 올바른 성모 공경

부록 2

성모 찬미가 '아카티스토스' <1335-1348>

(이 찬미가는 원문에 충실히 번역하였기에 기도문으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7 목동들이 천사들의 노래를 듣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시어 오신다."

목동들 그 목자 보러 달려갑니다.

마리아 품에서 젖을 떼는 순진한 어린양을 봅니다.

이렇게 찬미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목자의 어머니, 어린양의 어머니.

기뻐하십시오. 양 떼들의 사려 깊은 양 우리시여.

기뻐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적으로부터 지켜 내시는 보루시여.

기뻐하십시오. 천상 문의 열쇠시여.

기뻐하십시오. 하늘이 땅과 함께 찬양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당신은 증언하는 사도들의 입이십니다.

기뻐하십시오. 당신은 감히 꺾을 수 없는

순교자들의 용기이십니다.

기뻐하십시오. 신앙의 튼튼한 기반이시여. 기뻐하십시오.

은총의 찬란한 깃발이시여.

기뻐하십시오. 당신으로 인해 지옥은 벌거벗겨지고

당신으로 우리는 영광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기뻐하십시오. 동정녀시여. 신부시여!"

8 하느님께서 인도하는 별을 보고

동방 박사 그 빛을 따랐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찾을 수 있게 하는 횃불과도 같았습니다.

지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그분께 당도하였습니다.

기뻐 찬양하며 외칩니다. 알렐루야!

9 칼데아의 동방 박사들이

동정녀 품에 안기신 인간의 창조주를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종의 모습을 취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사려 깊은 그 박사들, 선물로 그분께 영광을 드립니다.

복되신 어머니를 찬미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지지 않는 별들의 어머니.

기뻐하십시오. 신비로운 날들의 여명이시여.

기뻐하십시오. 당신은 오류의 용광로 불길을 끄셨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삼위일체 신비의 빛을 비추기 시작하셨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인간의 원수 폭군을

그 권좌로부터 끌어내리셨습니다.

기뻐하십시오. 당신은 인간의 친구

주님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이방인들을 미신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계속>

떠남 뒤에 남는 것

사람에게 슬픔이란 것은 무언가 ‘없다’는 것에서 비롯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명예든, 재물이든 그런 것들이 나에겐 없다는 ‘부재의 체험’ 말입니다.

TV를 켜면 모두 (나에게 없는) 뛰어난 미모를 갖춘 사람들이 주인공이고, 유명인들의 집을 소개하는 화면을 보면 모든 게 완벽하게 갖추어진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패션잡지를 보면 온통 갖고 싶은 것들뿐이고, 아파트나 자동차 광고들도 상위 3퍼센트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라고 부추깁니다. 이렇게 남들은 다 누리며 사는 것 같은데 나에겐 그것들이 ‘없다’는 느낌이 들 때(결핍과 부재) ‘난 불행한 것 같은’ 슬픔이 드는 것입니다. 이런 주변 환경 때문에 우리는 항상 ‘있어야만’(충족)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떡하든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합니다. 어머니가 먼 여행을 떠나기 위해 집을 비우기 전 여러 가지 당부 말씀을 남기듯이, 아니면 집안 어른이 자식들을 모아 놓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듯이, 예수님은 떠나실 때가 되자 제자들에게 간곡한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남기십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것, 이제 볼 수 없게 된다는 것... 스승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는 자신들의 ‘존재이유’이자 그들의 행복과 평화를 유지해주는 ‘절대조건’이었습니다. 스승의 빈자리, 제자들은 얼마나 서운하고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이런 절대조건인 예수님이 이제 자신들을 떠나겠다고 하니, 아마 제자들은 더이상 행복할 수도 없고, 성장의 기회도 잃었으며,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떠나

는 것이 제자들에게 더 이로울 거라는 것”, “몸은 없어도 너희와 함께 있을 것” 그리고 “다른 보호자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요한 14,16 참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빗대어 아주 오래되고 기발한 비유가 있습니다.

여기 씨앗 하나가 있습니다. 이 씨앗은 씨앗 그대로 존재하려는 경향과 현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싹을 틔워 다른 생명을 태동시키려는 두 가지 경향을 동시에 지닙니다. 현실에 만족하며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그 씨앗은 ‘안정적인 씨앗’ 하나로 존재하겠지만 결국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스스로 땅에 묻혀 자기 몸을 ‘없애면’, 여기에 싹이 돋고 또 다른 생명으로 자라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즉 현실의 자기를 부정함으로써 수많은 생명으로 확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현재의 씨앗으로 남아있기를 원치 않았습다. 예수님께 너무 밀착되어 있는 제자들의 결을 떠남으로써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제 복음 활동의 주도권, 열쇠는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 복음의 드라마 주인공은 제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명찬 신부 / 서울대교구 오금동 성요셉성당 주임

사물에 불과한 제대에 왜 절을 하나요?

제대는 교회의 원천이요 머리로 중심이신 그리스도 신비의 표지입니다. 제대는 어린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사제직을 통하여 인간 구원과 하느님과 인간의 화해를 이루는 데 필요한 희생 제사를 재현하는 식탁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전례 거행 중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은 제대이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상징으로서 제대에 대해 깊은 존경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정의철 신부 / 생활성서

이번주 전례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보나 보나	정광미 프란체스카	이진향 아네스
제1독서자	이범주 다니엘	김교복 레오	이영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김아영 아가다	서용숙 에스텔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북 1반

다음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청년피정참석 어린이전례	신덕례 테레사	정미영 미카엘라
제1독서자	"	김교복 레오	이상철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	서용숙 에스텔	이희경 크리스티나
제물봉헌자			하버/카슨 1,2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제11회 백삼위한마당 가족체육대회 : 청팀 우승

선수들과 응원에 참여하신 모든 교우들, 그리고 행사진행을 위해 수고하신 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경품1등 : 대건회 신용석 비오 님이 삼성노트북(타블렛 겸용)에 당첨됐습니다. 축하합니다.

◆ 교등부 견진성사 받은 학생들 축하합니다.

- 일시 : 5월24일(토) 오전 10시 성마가렛 매리 본당
- 주례사제 : 오스카 솔리스 주교님
- 우리본당에서 4명의 학생(10학년)과 교사1명이 성사를 받았습니 다.
- * 이진욱 미카엘 * 조 크리스토퍼 * 김호재 우르시노
- * 신 모니카 * 오 보나(주일학교 교사)
- 미사후 본당에 와서 축하식을 가졌습니다.
- 문의 : 빈센트 신 견진교리교사 ☎(310)744-5878

◆ LA 대교구 정승구 안드레아 신부 사제수품식 및 첫 감사미사

- 사제수품식 : 5월31일(토) 오전 9시 LA주교좌 성당
- 첫감사미사 : 6월1일(주일) 오후 5시 성 그레고리 한인 성당(900 S. Bronson Av. LA, CA 90019)
- 한인교우들을 모두 초대합니다. 함께 자리하시어 축복해 주시기바랍니다.

◆ 124위 한국순교자 시복식 참가단 모집

프란치스코 교황성하께서 오는 8월16일 서울에서 124위 한국 순교자 시복식을 거행하심에 맞추어 북미주 사제협의회에서 '교황님과 함께하는 한국성지순례(Pilgrimage with Pop Francis in Korea)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참가단을 모집합니다. 한국어권(5박6일), 영어권(9박10일) 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 출발(한국어권 8월11일, 영어권 8월10일)은 함께 하고 돌아오는 날은 자유롭게 결정.

◆ '백삼위 한인성당 장학회' 장학금신청 마감 임박

- 수혜대상 : 12학년~대학재학생(1~3학년)
- 자격 : 본당 등록신자 및 등록신자의 자녀로 교회활동 및 봉사에 참여하며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 신청기간 : 현재 신청서 배부중~5월31일까지 마감 (사무실에 비치)
- 장학금 지급 : 8월10일 예정, 한 학생당 \$2,000

- 미주지역 참가단을 위한 지정석 할당은 선착순
- 한국성지순례 : 8월13일~14일
- 시복식 : 8월16일 서울 광화문 광장
- 자세한 내용은 사무실에 비치된 참가신청 안내서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주일학교 미사전례 독서자 뽑습니다.

- 대상 : 주일학교 학생으로 현재 6~12학년
- 모집마감 : 6월8일(주일)
- 문의 : 이진원 루시아 초등부 교무주임 ☎(310)744-8895

◆ 본당 신임 사무장 공개 모집

- 현 사무장이 오는 6월말까지 소임이 끝남에따라 신임 사무장을 공개 모집합니다. 관심있는 분은 이력서와 본인 소개서를 본당 신부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7차 FIAT 리더십 교육피절

- 일시 : 6월19일(목) 오후 4시~22일(주일) 오후 1시
- 장소 : 애나하임 성토마스 한인천주교회
- 참가대상 : 주일학교 교사,중고등부 봉사자 등
- 문의 : FIAT재단 ☎(714)772-3995, ex)106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5월25일(주일) : 메모리얼데이 연휴로 친교자리 쉽니다.
* 주일학교 수업 없습니다.
- 6월1일(주일) : 소공동체(김밥, 떡 \$4)
* 주일학교(12학년 불고기덮밥)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미순	강태홍	고천용	김원모	김원호	김일선	성전헌금	강미순	강태홍	고천용	김원모	김원호	김현숙
	김재영	김정순	김현숙	문두현	박영룡	박영희		박영룡	신순철	안태갑	오세원	윤희동	이근태
	반정이	신순철	안재경	안태갑	오세원	육근주		이영희	이인석	이일길	임 순	정혜영	최미열
	윤희동	이근태	이영희	이인석	임 순	정혜영		최원석	최지영				
	최미열	최원석	최지영	한창주									
합계 : \$3,250							합사헌금 : \$500(익명)						
주일미사 헌금 : \$2,642							주보광고후원 : \$250						
							리사이클링 : \$84.11						

- ◆ 오늘주일(25일) 학생미사(영어)를 한국어미사로 봉헌합니다.
26일(월)이 메모리얼데이 연휴입니다.
- ◆ 첫영성체 리허설, 고해성사, 예식
 - 리허설 및 고해성사 : 5월31일(토) 오후 3시~5시
 - 예식 : 6월1일(주일) 낮 11시 미사중
 - 문의 : 이진원 루시아 초등부교무주임 ☎(310)780-8895
- ◆ 2014-2015학년도 주일학교 등록 접수
 - 대상 : 유치원~12학년
 - 1차접수 : 6월15일(주일) 방학전까지 마감
 - 등록비 : 첫째 \$100, 둘째 \$80, 셋째 \$60, 넷째 무료
 - 2차접수 : 9월7일부터 등록비 인상(\$160, \$140, \$120)
 - 자모회비 : \$50(가정당)
- ◆ 주일학교 서머캠프
 - 일정 : 6월27일(금)~29일(주일)
 - 장소 : Oak Glen 크리스천 컨퍼런스센터(www.oakglen.org)
 - 대상 : 3~12학년(선착순 50명) *참가비 : \$50(no refund)
 - 문의 : 박윤희 스테파니아 행사담당 교사 ☎(310)613-9116
- ◆ 2014-2015학년도 백삼위한국학교 등록 접수
 - 대상 : 유치원~SAT반
 - 등록비 : 첫째 \$200, 둘째 \$190, 셋째 : \$180, 넷째 : 무료
(6월15일전까지 등록하면 20% 할인 혜택), SAT반 \$200
 - 접수처 : 한국학교 교사실(2층)
 - 문의 : 최 바르톨로매오 한국학교교장 ☎(213)700-9399
- ◆ 대학수능 SAT 한국어 준비반 백삼위 본당에서 교육
 - 기간 : 6월21일(토)~8월2일(토), 한국어진흥재단 주관
 - 공부시간 : 매주 토요일 오전 9시30분~낮 12시30분
 - 수강료 : 무료(등록비 \$20와 교재비를 받습니다.)

“새 신자 환영합니다.”

남가주 소식

- ◆ 남가주 성령쇄신 봉사회 행사 안내
 - 제27차 성령안의 새생활 세미나 : 5월29일~6월1일
 - 장소 : 드폴 피정센터
 - 강사 : 강요셉 신부(구속주의 한국지구장)
 - 성령강림 대축일 전야제 : 6월7일(토) 오후 6시30분
 - 장소 : 성 바오로 한인천주교회(1920 S. Bronson Av. LA)
 - 강사 : 강요셉 신부(구속주회 한국지구장)
 - 이상훈 신부(LA대교구, 남가주성령쇄신 봉사회 지도신부)
 - 문의 : 각본당 성령기도회 회장(백삼위-강혜원 아네스)
- ◆ 제21기 커피교육 안내
 - 일시 : 6월1일, 2일 양일중 택일
 - 수강료 : \$200(4시간 교육, 30회 실습)
 - 장소 : LA 성 아그네스 성당(문의 ☎323-731-4433)

노공동체 부 장	김명재 아가다 (310)866-8778
차 장	이희경 크리스티나 박은혜 클라우디아
차 장	김희연 루시아 정병옥 율리아

구역/장	반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이순자 비비안나 213-675-0498	이순자 비비안나 213-675-0498 5/18(주일) 체육대회
	2	김찬구 요한 701-6343	김찬구 요한 701-6343 5/18(주일) 체육대회
	3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5/16(금) 오후 8시
토런스 서 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강인모 테오도시오 780-3258	강인모 테오도시오 780-3258 5/18(주일) 체육대회
	2	심옥방 미카엘라 999-5808	심옥방 미카엘라 999-5808 5/18(주일) 체육대회
	3	정광미 프란체스카 617-1132	정광미 프란체스카 617-1132 5/18(주일) 체육대회
토런스 남 최옥희 데레사 508-2912	1	박문주 엘리사벳 968-8280	박문주 엘리사벳 968-8280 5/18(주일) 체육대회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5/18(주일) 체육대회
	3	조정선 마리아 945-8204	조정선 마리아 945-8204 5/18(주일) 체육대회
토런스 북 조화숙 안젤라 213 272-8393	1	정병옥 율리아 404-1607	정병옥 율리아 404-1607 5/18(주일) 체육대회
	2	1반과 같음	체육대회
하버 카슨 윤희동 안토니오 365-7871	1/2	조소영 수산나 804-7645	조소영 수산나 804-7645 5/18(주일) 체육대회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5/18(주일) 체육대회
P. V. 남정희 베네딕다 384-3289	1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5/18(주일) 체육대회
	2	금유미 크리스센시아 482-9108	금유미 크리스센시아 482-9108 5/18(주일) 체육대회
	3	정종미 클라라 818-1799	정종미 클라라 818-1799 5/18(주일) 체육대회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이귀란 아네스 617-3568 5/13(화) 오전 10시 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사목회	오후 1시
-----	-------

다음주 단체모임

구역장 / 반장 모임	오후 1시
-------------	-------

“하느님의 종 124위 시복 맞아 성지순례하고 전대사(全大赦) 받으세요!”

한국 천주교 각 교구는 하느님의 종 124위의 신앙적 모범을 우리의 삶 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실천하도록 권고하며 전대사를 반포했습니다. 고해성사와 미사(영성체) 참례, 묵주기도 5단, 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의 ‘시복시성 기도문’과 ‘프란치스코 교황 한국 방문과 시복식을 위한 기도’, 주모경 등을 봉헌하고 교구에서 지정한 성지와 성당을 방문하면 전대사 특전이 주어집니다.

-교구별 전대사 기간 및 지정 순례지-

- 서울대교구(6월1일~10월31일): 명동대성당, 종로성당, 중림동약현성당, 가회동성당, 절두산성지, 당고개성지, 새남터성지, 서소문성지, 삼성산성지, 좌포도청터, 우포도청터, 경기감영터
- 군중교구(6월1일~10월31일): 왜고개 성지
- 수원교구(6월1일~10월31일): 남한산성 성지, 수리산 성지, 양근 성지, 어농 성지, 여주성당, 요당리 성지, 죽산 성지, 천진암 성지
- 인천교구(6월1일~10월31일): 일만위 순교자현양동산, 갑곶 순교성지, 이승훈 묘역, 제물진두
- 의정부교구(6월1일~10월31일): 마재 성지, 의정부성당, 행주성당, 갈곡리 공소
- 춘천교구(6월1일~10월31일): 포천성당
- 원주교구(6월1일~10월31일): 강원감영, 배론성지
- 대전교구(6월1일~10월31일): 갈매못 성지, 공세리 성지, 다락골 성지, 베나드리 성지, 성거산 성지, 솔피 성지, 수리치골 성지, 신리 성지, 원머리 성지, 여사울 성지, 작은재줄무덤 성지, 지석리 성지, 진산 성지, 하부내포 성지, 합덕 성지, 해미 순교 성지, 홍성 홍주 성지, 황무실 성지, 황새바위 순교 성지
- 청주교구(6월1일~10월31일): 배티 순교 성지, 서운동성당, 진천성당, 음성성당, 연풍 순교 성지, 청주중앙공원 순교자현양비, 충주관아공원순교자현양비
- 전주교구(6월1일~10월31일): 전동성당, 전주 숲정이 순교성지, 초남이성지, 치명자산 성지, 전주옥터, 김계동현, 고창개갑장터
- 광주대교구(4월24일~8월16일): 임동성당, 곡성성당, 나주성당, 산정동성당, 영광성당
- 대구대교구(5월17일~12월31일): 대구 관덕정 순교기념관, 대구 복자성당, 경주 진목정 성지
- 안동교구(6월1일~10월31일): 상주옥터, 마원 성지
- 마산교구(6월1일~12월31일): 신석복 마르코 순교자묘소, 구한선 타대오순교자묘소, 정찬문 안토니오 순교자묘소, 박대식 빅토리오 순교자묘소, 윤봉문 요셉 순교자묘소, 명례 성지
- 부산교구(5월24일~9월27일): 김범우 순교자 성지,

오른대 순교자 성지, 울산 병영 순교 성지, 수영 장대 순교 성지

• 제주교구(6월1일~10월31일): 황사평 성지, 대정 성지, 용수 성지

(교구별 전대사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기본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교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임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셨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죽는 줄 뻔히 알면서 그 길을 피하지 않고 계속 가셨다면, 그것은 간접적인 자살행위가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는 교회는 자살을 금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간접적 자살로 교회의 가르침과 상반되는 것이 아닙니까?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아이를 낳다가 죽은 어느 한 어머니를 성인품에 올리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아이를 가졌을 때, 의사들이 자녀를 낳으면 어머니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교회 가르침에서도 어머니의 목숨에 직접적인 위험을 가져올 경우 인공 유산을 허락합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는 아이를 낳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죽음을 선택한 어머니를 간접적으로 자살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거룩한 어머니라고 칭송합니다.

침몰하는 배에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구명복을 양보하고 배에 먼저 내리지 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간접적인 자살을 선택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랑의 희생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라고 존경합니다.

자살은 현실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죽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금지하는 안락사는 바로 이런 맥락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철학자 맥머레이는 사랑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사랑은 타인을 돌보기 위해 자신에 대해 잊어버리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고통과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사랑의 숭고한 희생 행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이런 사랑의 숭고한 희생 행위인 것입니다.

◆권순호 신부 / 부산교구 주례성당 주임